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옥
배재대 교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은 항상 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졸속으로 이뤄져 왔으며, 그 최종 결과는 변함없이 기존 의원들의 이익을 무언가 좀 더 늘려주는 기대를 약간 하게 된다. 낙관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 원칙'을 내세우며 선거구 간 최대 인구 편차 기준을 3대 1에서 2대 1로 낮추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의원들을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빠뜨렸다. 새로운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선거구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농촌 출신 의원의 지역구를 잃어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의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인구 기준을 강조하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 그리고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정치권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하면서 과거에 비해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 주었다. 그리고 단순히 선거구 획정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과 의원 정수 문제까지 폭 넓게 논의하고 있는 것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정당에 따라, 또 의원 개인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당파적 이익, 의원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보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까?

참여연대가 지난 6월과 7월 사이, 선거·정당 등 정치 과정을 전공하는 정치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2%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의원 정수를 33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치학자라고 해서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치인에 비해서 덜 당파적이고,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국민은 놀랄 수 있다.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은 정치인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민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 물론 대부분이 선거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정치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진 상태에서 의원 정수 확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한국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한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학자들이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정수 확대 없이 현재의 2대 1 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할 경우 지방과 농촌의 대표성 훼손이 불가피한 정치 현실 때문이다. 만약 의원 정수를 확대한다면, 이를 비례 의석에 배정한 후 비례 의석을 권역별 혹은 광역단체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방과 농촌의 대표

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선거구 획정이라는 난제 해결의 열쇠는 의원 정수 확대에 있다. 물론 국민 사이에 널리 퍼진 정치 불신을 감안할 때 의원 정수 확대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 정수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한국의 정치발전과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지방과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정치권·학계·시민단체·언론이 힘을 합하여 국민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의원들은 국민 여론을 핑계로 의원 정수 확대에 매우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의원 정수 확대는 기존 의원들에게는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의원 수가 확대될수록 희소 가치와 특권의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어쩌면 의원들이 국민 여론을 무기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일부 포기하는 조건으로 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社說

세월호 인양, 진실도 함께 끌어올리기를

세월호가 내년 7월 이전에 인양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인양 업체로 중국 국영기업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양 완료 시기는 당초 내년 가을에서 내년 7월 이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소식이다.

해수부와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은 851억 원의 세월호 인양 대금을 세 차례로 나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상하이셀비지는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업체로 지난날 양쯔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침몰 사고에 참여한 등 약 1천900건의 선박 구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세월호 인양 방식은 선체에 구멍을 뚫지 않고 상하이셀비지 측이 제안한 대로 부력재와 철재빔을 이용하기로 했다. 특히 해수부는 미수습자 9명의 시신이 유실되지 않도록 모든 창문과 출입구를 안전망으로 폐쇄하고, 선체 전면과 후면에 대형 그물망을 설치하며 리프팅빔 위에도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양

작업을 하는 주변 바다에도 대형 그물망을 설치해 총 4중으로 유실을 막는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아직도 남아 있는 9명의 실종자 구조 목적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 이전과 당시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희생자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한편 진실을 끌어올려 아직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진상을 규명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동안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선체 인양의 실익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유가족과 국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것은 참사로 겪은 '심리적 외상'의 치유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인양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면, 행위 별다른 성과가 없더라도 유가족들의 상한 마음은 많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안전한 선체 인양은 전문가의 손에 맡겨 두면 된다. 세월호 인양으로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 수장돼 있는 진실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

전문인력 없이 도시재생 사업 가능하겠나

광주의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표류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준비 부족과 의지 결여로 정부 공모사업에서 줄줄이 탈락, 광주역을 비롯한 구도심의 공동화 해소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해당 지역 고유의 유형 있는 기능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써 적절한 시행할 경우 총돌증후군 및 일부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수술적 치료 후 재활치료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환자가 질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협조 하에 수술과 재활치료가 이뤄진다면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존적 치료는 건관절 및 주위 관절의 균형 있는 기능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써 적절한 시행할 경우 총돌증후군 및 일부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수술적 치료 후 재활치료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환자가 질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협조 하에 수술과 재활치료가 이뤄진다면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했다. 또 도시활력 증진을 위해 신청한 6개 사업 중 남구 공동체 마을 조성을 제외한 옛 전남도청 분수대 하부 시민광장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시의 이 같은 공모사업 탈락은 예견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시의 도시재생과 전체 인력은 14명인데 도시재생 관련 인력은 최근 총원단 4명을 포함해서 고작 1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광주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 37명, 인천 49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러한 빈약한 인력으로는 기존 도시개발 업무만 감당하기에도 빠듯해, 도시재생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무엇보다 시나 구청의 의지가 중요하다.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논리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내세우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광주시는 이제라도 전담 인력 확충과 함께 도시재생 추진단 신설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신비감을 주는 맹수라면 역시 호랑이와 사자일 것이다. 그들은 우리 앞에 실존하면서도 수천 년을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으로 살아왔다. 이중 한국 호랑이는 이미 오래전에 멸종돼 한반도에는 한 마리도 없을 것이라는 게 동물학자들의 결론이다.

현재는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몸'(그것도 수입산)이지만 고려나 조선시대에만 해도 수많은 호랑이 때문에 백성들의 희생을 이겼다. 이로 인해 지방장관의 능력을 호랑이 되치 여부로 판가름하기까지 했다.

고려 현종(991~1031년) 때 당시 양주(지금 서울)에는 호랑이가 수시로 출몰해 사람들을 물어 갔다. 이에 임금이 강감찬을 양주로 보냈다. 강감찬은 숲에서 생활하는 호랑이의 습성을 파악, 마을 주변 산의 모든 나무를 베어 내 민둥산으로 만든 뒤, 함정을 파고 밧을 놓아 호랑이를 모두 잡아 죽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감찬이 호랑이에게 큰 호통을 쳐 북방으로 몰아냈다가, 부적을 사용해 호랑이를 몰리쳤다가, 호랑이와의 내기 바둑에서 이

겨 백두산 너머로 몰리나게 했다는 등의 감감한 호랑이 퇴치 신화가 탄생하게 된다.

공포의 대상이자 한편으로 민간 신앙의 대상이었던 호랑이는 일제 강점기에 거의 사라져 버렸다. 일제는 산간 오지 개발에 방해되는 짐승이라며 호랑이를 마구 죽였다. 속내는 한반도의 상징 동물이라 할 수 있는 호랑이를 없애 민족정신을 말살하기 위함이었다.

최근 사자 한 마리의 죽을 앞에 세계가 공분하고 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국민 사자' 세실이 미국인 치료사에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탓이다. 올해 13살 된 세실은 짐바브웨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던 사자일 뿐만 아니라 1999년부터 옥스포드에서 연구해 오던 보호 대상이었다.

그런데 국립공원 밖으로 유인당한 후 가족이 벗겨지고 머리가 잘려나가 짐바브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사자를 죽인 팔머를 처벌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머지않아 사자나 호랑이를 동물도감에서나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기우이길 바란다. /채희중 사회팀장 chae@

강감찬과 호랑이

의료칼럼

어깨 통증 예방과 치료



조현중
세계로병원 5정형외과 원장

을 수 있어 이학적 검사나 방사선 검사를 하기 전에 자세한 병력 청취가 대단히 중요하다.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로는 단순 방사선 사진, 초음파, MRI가 있으며 초음파와 MRI를 통해 회전근개 손상 유무 및 염증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회전근개 파열의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증 완화가 주 치료 목적이 되며, 파열의 범위가 큰 경우라도 고정환자의 경우는 통증이 완화된 상태에서 일상생활 및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능 회복을 촉진하는 비수술적 치료는 약물치료, 운동치료 및 국소 주사치료 등이 있다. 그러나 보존적 치료를 3~6개월 이상 시행해도 증상 호전이 없거나 파열이 진행되어 근력약화의 소견을 보일 경우 환자의 나이 및 활동도 등을 고려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고령의 환자와 활동력이 왕성한 장년층의 회전근개 완전 파열은 서로 다르게 취급해 치료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통증을 유발시키는 활동을 피하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투여해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증 및 총돌로 인한 관절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을 통해 관절 운동범위를 확보하며, 점차 일상 생활을 위한 기능 회복을 시도하게 된다. 이때 제한적으로 스테로이드 국소주사를 시행함으로써 어깨 관절 간격(견봉하 공간)내 염증을 완화시켜 통증을 줄이며, 운동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운동 치료는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하며, 관절 신장운동 및 근력 강화운동 중 통증이 유발되는 것은 과도한 자극이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6개월 정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회전근개 파열에서 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건(힘줄)과 골의 재부착을 통해 관절의 간격을 감소시켜 반복적인 하중

이 가해졌을 때 건·골 사이에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강한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골두 대결절에 해부학적 재부착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술식들(일열 봉합술, 이열봉합술, 교량형 봉합술)이 있다. 그러나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의 경우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심해 견봉합술이 쉽지 않으며 ▲건 이식을 통한 재건술이나 관절 치환술 등을 시행하더라도 제대로 된 치유 및 기능회복을 기대하기 힘들고 ▲고령자의 경우 적절한 재활치료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힘들어 그 치료 효과가 더욱 감소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보존적 치료는 건관절 및 주위 관절의 균형 있는 기능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써 적절한 시행할 경우 총돌증후군 및 일부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수술적 치료 후 재활치료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치료법이라 할 수 있다. 환자가 질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협조 하에 수술과 재활치료가 이뤄진다면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고

호기심 많은 내 손자 손녀는 책벌레!



조귀임
전직 초등 교사

비한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그건 생각하는 힘이 있고, 심신이 건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은 물론, 즐거움과 삶의 목표까지 찾을 수 있다.

여기 호기심 많고 책을 좋아하는 손주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우리 손자 손녀는 뱃속에서부터 책 읽기로 태교를 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날마다 7권 이상 읽어 줘야 잠이 드는 책벌레들이다. 손자는 과학에 관한 책을 좋아해서 동물, 식물, 곤충, 공룡 책을 즐겨본다. 올해도 자연관찰 과학책 시리즈를 사줬더니 즐겨본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는 책이 가득하다.

어느 날 밤, 식구들이 다 누웠는데 손자 녀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엄마, 아빠 짝짓기 할거야?"라고 말했다. 그 순간에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책에서 동물들의 짝짓기를 보고 그런 궁금증까지 생겼구나 생각하니 기특하기도

했다. 이렇게 상상력과 호기심이 뛰어난 것도 꾸준히 책을 읽은 덕분일 것이다.

우리 손자 손녀는 할머니가 책 읽어 주는 걸 무척 좋아한다. 그도 그럴 것이 등장 인물에 어울리게 실감나는 목소리로 표정이나 몸짓으로 동화구연을 하니가 즐거우니 쉽게 이해하고, 기쁨, 슬픔, 노여움 등 감정표현도 정확하다.

책을 읽어 주면서 등장인물의 착한 행동, 나쁜 행동, 가장 재미있는 점, 교훈적인 내용을 반드시 질문해서 말하도록 한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책을 소중히 다루고, 조심조심 책장 제자리에 예쁘게 정리하는 올바른 습관이 몸에 밴 녀석들이다.

애들 엄마, 아빠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면서 쉬는 날이면 틈틈이 현장 체험을 시킨다. 손자 손녀가 동물, 식물, 곤충, 물고기, 공룡을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를 맡아 보도록 하려고 광주 우치동물원, 대전 동물원, 순천 정원 꽃박람회, 함평 나비 엑스포 공원, 여수 엑스포 해양박물관, 일본 추라우미 해양박물관, 해남 공룡박물관 등을 다녀왔다. 책에서 읽은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본다면 최고의 학습이 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면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다 자 인 실 2200-536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사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